수원 국선관 개관, 186명 입주

벽면균열·방배치 불균형등 문제점 노출

수원캠퍼스 체육과학대학 체육특기생들의 전용 기숙사인 국선관 개관식이 지난 2일 있었다.

연건평 1천60평,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국선관은 91년 10월5일 착공하여 지난 2월 중순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남학생 1백13명, 여학생 73명 등 총 1백86명이 생활하고 있어 학생들의 편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선관은 입주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로 건물벽에 금이가고 창문틀이 맞지 않는 등 건물공사의 부실성을 보여 주었으며, 둘째로 남학생 기숙사는 방이 7개나 비어있는 반면에 여학생 기숙사는 방이 모자라 예정 배치도에는 경기분석실로 되어 있는 방을 숙소로 전용하고 있어 운영계획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체중감량실 욕조에 온수공급이 안되고, 커텐이 없는 것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건물벽의 균열은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균열이며, 온수공급·투명유리 교체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한 여학생 기숙사 증의 중간배치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입주 학생분이 확정되는 대로 공간 재배치를 할 예정이며, 창틀과 커텐설치 등의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국선관의 운영이 체육부에만 속해 있지 않고 식당은 애지원에서, 보수문제는 학교 사무처와 협조를 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대, 교육실습

사범대는 오는 4월5일부터 5월 1일까지 사범대학 4학년 전원과 2학년 제학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대학 4학년 제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서울캠퍼스 2백79명, 수원캠퍼스 1백74명등 모두 4백53명이나 이번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을 감안하면 그 수는 조금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교육실습이 남부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며 남부서는 서울 신탁은행 휘경동 지점이다. 한편, 실습학교 선정은 오는 9일 사범대 교무실에서 열리는 교직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 V O U 'Open Studio'

수원캠퍼스 대학의 소리(V·O·U)방송국에서는 지난 5인 신입생 환영 행사의 일환으로 '93신입생을 위한 open STUDIO'를 학생회관 로비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오후1시, 4시 2회에 걸쳐 '뉴스', '음악이 있는 오후', '보도기획', '93 새출발'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3·4일에는 V·O·U TV STUDIO에서 'J·F·K', '그들도 우리처럼'등 2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한편 서울캠퍼스 대학의 소리 방송국에서도 오는 19일 노천극장에서 '신입생을 위한 방송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수영교수, 학술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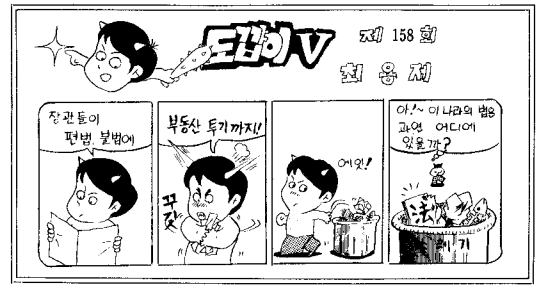
본교 박수영(법대, 행정학)교수는 지난 2월25일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가 제정·수상하는 학술상 저술부문에 선정되었다.

한국시정학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교수는 저서 "서구도시개발론"으로 지난 2월27일 학회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대학원 '예술감상특강'

본교 대학원는 오는 2일부터 16주간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현대 예술감상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현대미술, 현대무용, 현대음악 감상을 각각 5주씩 실시하고 마지막주는 종합토론및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9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거행

지난 2일, 서울-노천극장 수원-체과대 앞서

199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2일 서울 노천극장, 수원 체육교육관 광장에서 분리되어 거행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양 캠퍼스 교무처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입학허가, 총장축사, 음대 브라스밴드 축하연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하지연(한의대·한의)양 등 2천명, 수원 홍인기(공대·기계공)군등 2천3백50명의 신입생 4천5백50명은 신입생선서를 통해 학업에 열중하고 덕성과 교양을 높일 것을 다짐했다.

이어 조영식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훈시를 통해 "여러분들은 21세기의 주역으로 학문탐구와 자기수양에 게을리하지 말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캠인복위 복지장학생 모집

오는 13일까지, 아르바이트생도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93년도 1학기 복지 장학생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복지장학생은 총 1백20명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고 신청자는 학부모 주민등록 등본과 지방세 증명서,국세 각 1통, 전학기 성적증명서, 소속학과 학생회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 아르바이트생의 선발인원은 33명이고 학생식당, 교내·후문의 고교생통제, 홍보물 제거 등의 일을 하게 되며 구비서류는 학부모 주민등록등본·지방세 증명서 각 1통과 신청서인다.

한편, 인복위는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대 학생회장추천을 과 학생회장추천으로 바꾸고 인복위 단독으로 구성되었던 선발위원도 각 단대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선발명단은 15일 공고한다.

사대 무역과, 동문체육대회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학생회는 오는 10일 오전10시 공대 대운동장에서 '제11회 동문체육대회'를 마련한다.

졸업동문과 재학생간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해 해마다 치뤄지는 이번행사에는 농구, 축구등의 구기종목이 마련된다.

서울, 근무형태 변경 백지화

지난 3일, '감시·단속적 동의서'도 곧 반환

학교당국은 지난 3일, 서울캠퍼스의 관리직 직종분리와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사안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밝혔다.

학교측은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통해 근무형태변경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이렇게 백지화입장을 밝혔다.

사무처장은 지난 6일 전체관리직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을 사과드린다"고 관리직원들에게 공식사과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 동의서도 곧 반환할 것임을 비쳤다.

노조측은 공식사과와 더불어, 노사간 분위기쇄신을 위한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의 공식사과를 받고 인사조치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한 철야농성을 지난 3일 농성 14일만에 풀었다.

권영길 노조위원장은 회의석상에서 "학교측의 백지화입장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로써 지난 2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관리직의 청소직·경비직 분리와 근무형태변경이 오늘부터 이전의 근무형태(1일 2교대)로 원상복귀하게 된다.

사무직 직원 보직임면

양 캠퍼스는 지난 2월25일 사무직 직원에 대한 전보 및 신규 보직임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임명은 총 59명에 대한 것으로 서울캠퍼스 31명, 수원캠퍼스 28명이며, 과장급 25명, 주임급 25명 등이다.

서울,현금인출기 설치

서울캠퍼스 본관 경리과 앞에 현금자동 인출기가 설치되어 가동중이다. 서울신탁은행에서 지난 2월23일 개설한 현금자동 인출기의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의 경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이며, 공휴일에는 가동중지된다. 현금자동 인출기의 사용방식은 일반 시중의 인출기와 동일하다.

수원, 전산소 LAN공개강좌 실시

오는 25일, 전학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수원캠퍼스 전산소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공대 PC실에서 LAN시설 이용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전 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개강좌는 오는 19일까지이며, 전자계산소 교육지원실에서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비는 6천원이다.

이번 교육의 내용은 LAN의 개요 및 본교 LAN 소개, 기능 및 HOST-LAN 사용법, PC-LAN 기능과 사용법, 공중망 개요와 연결방법 등이다.

취재노트

"규모는 최대 수명은 1주"

◇…독백

노트구 오늘 아침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있었어.

간만에 일찍 눈비비며 등교하는데 고창골앞 삼거리 신호등이 아무리 기다려도 바뀌질 않았어.

그래 슬며시 차도로 발을 딛었더니 이놈하며 달려드는 과속차량에 엄마나.

몇번을 그러다가 큰 맘먹고 무단횡단에 성공 가슴쓸며 쳐다보니 그때야 과란 바꾼음을 켰잖아. 어휴.!

아마 횡단인이 적은 아간의 신호체계를 미처 바꾸지 못했나봐.

근데 어제도 그제도 심지어 내일까지 그모양일거라니 분통 안터지겠어.

내일도 그러면 정말 뽑아버릴꺼.! 순경아찌.!

◇…장학퀴즈

【퀴즈】아래 단어들중 공통점이 가장 적은 것은?

1. 경침
2. 새내기
3. 특별사면
4. 6·5공화국

(힌트) 1. 꽃생추위에 대한 불만 2. 마상 희망 3. 재수길에 대한 불안 4. 사상누각일지 모를 불안

◇…신입생을 집이라.!

개강을 맞이하여 각 과마다 신입생 물색에 눈을 번득이는 선배들이 득실득실 한다는데….

노트구 알아보니, 각 동아리에서 투입된 꽹이들이 자기 과에서 눈에 드는 93학번 새내기 끌어들이기 작전을 진행중이라고.

새내기 여러분.! 동아리 선택은 백년지대계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십이….

◇…서천교 공사의 공통점

1. 일단 시작했다하면 '동양최대, 한국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2. 공사는 시작했어도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입학할때 기초 공사가 덜어 있었고 복학하니 지붕이 덮이는걸 보니 우리 새내기들 예비역쯤 돼야 완공될한지.!

3. 개관식을 치루고 1주일이면 벽에 금이 간다—허술함의 꽃(?)

◇…반가운 얼굴들

방학중 그 넓은 교정을 공허하게 헸던 꽹이들.!

긴긴 방학을 무얼하며 보냈는지 궁근하기만.

찬바람 쌩쌩 불던 서천골에 꽃비 오니 개강이요, 개강이니 반가운 얼굴 하나둘 모이는데.

"어디갔다 이제 왔어?.!"

"학교 멀어 서울캠퍼스에 있었지—"

아~ 우리는 언제쯤 계절적 이산가족의 번고를 면할꼬…

◇오랜지족, 활동무대를 옮기다

압구정동 오렌지족이 서천골에도 동장하여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 알고보니 신학기 외이 빈짝이는 신종 차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대학생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무분수지만, 교내 폭주로 학생들은 위험하거나 차질서 무법으로 교직원 주차장 넘보는 예의를 보면 차 끌고 다니는 오렌지족의 소양교육만은 꼭 선행되어야할 듯

북방민족 유물 50점 이관

옛소련 아쿠티共서, 10월경 공개

본교 중앙박물관은 지난 2월28일 중앙시베리아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부터 역사, 민속자료 50점을 들여왔다.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학자의 왕래가 불가능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들 북방민족의 1백50여년 전 유물을 야쿠티아 공화국 문화부의 협조를 얻어 동양최초로 입수한 것으로, 특히 '쿰슈르', '가하'등 일부 유물은 서방에조차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자료로 문화인류사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박물관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이번 유물은 한반도의 그것과 닮은 점이 있어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민족은 북방에서 흘러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김태준(문리대 국문과 교수) 박물관장은 밝혔다.

현재 박물관은 한국 역사 주류에서 인류문화사로 그 범위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처 들여오지 못한 1백20여점의 유물을 오는 8월경에 입수, 10월경에는 들여온 모든 유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박물관장은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예비탐사를 거쳐 11월21일부터 올해 1월 10일 사이에 조사, 수집했으나 하바로스크 세관에서 통과되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서로 존중하는 새 전환점 돼길

校長寸語

▼노사관계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말로 '앙원히 만나지 않는 철로선'이라는 비유를 쓴다.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하면서도 근본적인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뭐라해도 잘자부를 쥐고 있는 쪽은 사용자측이니 만큼 노동자측은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사용자측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봐야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기본은 대등하게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 3일에야 일단락 지어졌던 우리 학교의 노조와 학교측과의 갈등은 노사관계의 기본적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소위 '관리직 직종분리와 근무형태 변경 파문'으로 이름지을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인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업무한계를 분명히한다는 학교측의 직종분리에 대한 명분과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노조의 거센 항의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동의서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던 노조는 "근무형태 변경은 관철협약 사항이므로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를 법적으로까지 끌고갈 태세등 보였다. 사실 학교측은 근무형태 변경을 노조측에 통보하기전에 협상을 몇차례 시도했었다. 그러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를 제외한 상태에서 관리직에 대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 한 것이다. 학교측은 진전이 없는 협상때문에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일방통보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노조측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노조의 항의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칫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뻔한 이번 사태는, 학교측이 직종분리와 근무형태변경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후 전체 판리직근무자 회의에서 사무처장이 문제를 공식 사과했으며, 노조위원장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당부의 말을 조합원에게 전했다. 이번 사태가 노사간에 새로운 분위기를 심어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서로에 대해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철로선은 영원히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 철로선위에는 김을 폭폭 내뿜어 절주해가는 열차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볼 직한 일이다.

학생의료공제회 이용안내

1. 학생의료공제회 목적
본교 학생이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고액의 치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해서 저학중 학생의 건강증진을 기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본교 보건진료소(제1차 진료기관) 경희의료원(제3차, 한방포함) 방문강사실의 진료기관(단, 의료요험증 소지자에 한함)
3. 요양급여기간 및 제한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학기당 통산 90일
4. 일반회원의 진료절차
학생회 공제회 담당자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아 교내 보건진료소(옥외대학입구)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보건소의 진료범위를 넘는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는 경희의료원으로 이송함
5. 공제비 신청절차
가. 이중가입회원(부모나 본인의 기존의료보험기드를 이용하여 진료받은 회원)은 병원접수창구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본인 부담금 납입영수증을 공제회(학생처내)에 제출하면 법료와 같이 공제비를 지급함
나. 일반회원(공제회에서 진료카드를 발부받은 회원)은 귀회의 료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기입과와 모드것을 동일하게 처리하여 줌
다. 공제회원이 경희의료원을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응급하여 비진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응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공제비를 지급함
*공제회원이 납입한 기입비 및 공제회비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반환 될 수 없음(의료공제회 정관 제39조)

◇ 급여기준 ◇

가. 일반회원 진료시

구 분	총진료비중 보험본부	총진료비중 공제회부담
과잉진단 진료소	3,000원 이만: 무료 이상:30%	70%
경희의료원 (지과,한방 포함 본인부담)	55%	45%
경희의료원 (지과,한방 입원)	20%	80%

나. 이중기입회원 진료시

구 분	본인부담금에 대한 본인부담	공제회부담
과잉진단 진료소	20%	80%
경희의료원 (지과 한방 포함)	0%	100%
경희의료원 (지과,한방 입원)	0%	100%

이중 기입회원의 본인부담금이란 총진료비중 의료보험법에 의한 본인 부담금중 공제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진료비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공제회 이용절차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학생처 의료공제회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1-0047, 0048)
*93년도 1학기 복학생은 3월 25일까지 가입바랍니다.
의료공제회비 7,000원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우 체 국 이 용 안 내

우편업무
·국내, 국제우편물 접수
발송요금:1종규격봉서(50g까지):110원
2종통상엽서 :80원
3종대학주보1부발송시 :50원
·우표, 엽서, 수입인지 판매
·호적등·초본, 졸업증명서등 민원우편 신청

금융업무
·체신예금:
①우체국 전국온라인망 완성
②온라인전자종합통장 개설로 전국우체국에서 입금,지급,송금가능
③공과금 자동납부
·체신보험:
①목적에 맞는 다양한 보험
②결혼자금,주택자금,여행자금등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③자녀의 앞날을 위한 교육자금을 위하여
④안락한 노후생활자금을 위하여
⑤예기지않은 불의의 사고대비를 위하여
·세금·공과금수납:모든 국세, 지방세, 공과금
·우편환
·자기앞수표:전국어디에서나 추신료없이 즉시 현금교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960-2005 수원캠퍼스 283-2355로 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우체국장

취업정보실 이용 안내

학생처 취업정보실에서는 졸업 후 취업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취업 및 진로상담
△취업 정보 제공
추천의뢰기업소개, 최근 채용공고, 취업, 수험뉴스, 업체별, 과거 취업정보, 지격증 취득정보, 기타 데이타통신(㈜ 취업정보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본교에 접수되는 각 기업체 취업추천의뢰 공문
△취업 준비 안내
시사상식, 면접시험요령, 이력서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논문·작문 작성법, 적성·인성 검사요령, 취업전문 강의 안내 등
△취업 자료 열람
△취업 희망 카드 접수
사진 1매 부착하여 취업희망 카드를 작성 제출바람
△위치:서울캠퍼스 학생회관 1층, 취업정보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업정보실을 방문하거나 서울캠퍼스 학생처 취업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61-0045~8, 0167)

학 생 처 장

93년도 이월 보충교육 안내

1. 대 상: 교직원 및 학생 예비군으로서 90, 91, 92년도 교육불참자(학교, 지역)
※대상자명단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 각 학과 게시
2. 교육 일정: 93.3.22(월)~3.27(토)
3. 교육 장소: 금곡문련장
4. 출발및 집결시간: 개인별 출발(금곡교장 운동장) 93.3.22. 07시55분까지 도착 완료할 것
5. 유의사항
가.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할 것(대리참가 확인)
나. 교육 종료 후 교육 참가 확인증을 필히 받을 것
다. 개인 승용차는 불허(견인조치)하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
라. 교통편:165-3(금곡 교장 직행 20분 간격), 165번, 30번 등 청량리-금곡
마. 기타 문의사항은 연대본부(961~0148, 0149)로 문의

경희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장

'93 교외 아르바이트 신청 공고

1. 신청기간:1993년 3월 10일(수)~3월 31일(수)
2. 신청장소:학생처 취업복지과(아르바이트 담당)
3. 지 참 물:학생증(또는 도서대출증), 반명함판 사진 1매, 도장
4. 유의사항:위 신청기간 중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처에서 알선하는 교외 아르바이트에 참가할 수 없으니 필히 신청기간을 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세한 사항은 학생처 아르바이트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서울캠퍼스:962~8211, 교내=0045~8, 0167)
(수원캠퍼스:0331)280~2114, 02)745~5702, 교내=2023-5)

학 생 처 장

예비군 소집점검 교육안내

1. 대 상: 교직원 및 학생으로서 병(일반하사 포함), 보충역 출신자중 7년차이상(86년 이전 전역자-86포함) 만33세까지의 대상자 전원
※대상자 명단:각 대학원 각 단과대 학과 게시
2. 일 정: 93. 4. 2. 08시 30분까지
3. 교육시간: 4시간
4. 장 소: 도서관 시청각 교육실
5. 복 장: 예비군복 착용
* 문의사항은 연대본부로 연락 (961-0148, 0149)

경희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장